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地域 教會의 障碍人 福祉에 관한 研究

- 大韓예수교 長老敎 합동측을 中心으로 -

A Study on Welfare Ministry with the Disabled

Person in Local Church

1998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社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南 在 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地域 教會의 障碍人 福祉에 관한 研究

- 大韓예수교 長老敎 합동측을 中心으로 -

A Study on Welfare Ministry with the Disabled
Person in Local Church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南 在 重

南在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8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문헌연구	4
2) 조사연구	4
(1) 조사 대상과 표집방법	4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5
(3)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5
3) 분석틀	6
3. 연구의 한계	7
II. 이론적 배경	8
1. 장애인의 개념 및 현황	8
1) 장애인의 개념	8
(1) UN 권고에 나타난 장애 개념	8
(2) 각 국의 장애 개념	10
(3)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	13
2) 장애 유형 및 특성	14
(1) 지체장애	14
(2) 시각장애	18
(3) 청각장애	19
(4) 언어장애	20

(5) 정신지체	21
3) 장애인의 현황	25
(1) 장애인 수	25
(2) 장애 원인과 사회 경제적 실태	26
(3) 장애인의 문제	30
2. 성경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	31
1) 장애인에 관한 성경의 사례	31
(1) 구약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의 사례	33
(2)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의 사례	34
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성경적 근거	36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	36
(2)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39
3.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40
III. 한국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43
1. 한국 교회 장애인 복지 사업의 발전 과정	43
1) 선교사의 장애인 복지 사업	43
2) 한국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45
(1) 개인과 기관의 활동	45
(2) 지역교회와 교단의 활동	46
(3) 선교회를 통한 장애인 복지 사업	47
2.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48
1) 지역교회의 간접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49
2) 지역교회의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50

IV. 조사 분석 결과 및 문제점	52
1. 조사 분석 결과	52
1) 일반적인 사항	52
(1) 응답자의 특성	53
(2) 응답한 교회의 특성	54
2)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	57
3)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교회	59
(1) 대상	59
(2) 급여	60
(3) 전달체계	61
(4) 재원	63
4) 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	65
2.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	66
V.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71
1.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교회의 사례	71
1) A교회(성남)	71
2) B교회(서울)	72
2. 사례분석결과	74
1) 담임 목사의 의식 변화	74
2)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상	75
3)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급여	75
4) 장애인 복지 사업의 전달체계	76

5) 지역 관공서와 협조 사역	76
VI. 결론 및 제언	78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부 록(설문지)	92

표 목 차

(표 I - 1) 설문지의 내용 분석	5
(표 II - 1) 장애 인구의 변화	25
(표 II - 2) 장애 분류별 분포	26
(표 II - 3) 장애인 출현율 비교	26
(표 II - 4) 장애 유형별 발생 원인	27
(표 II - 5) 재가 장애인의 교육 정도	27
(표 II - 6)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	28
(표 II - 7)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29
(표 II - 8) 재가 장애인의 취업 상태	29
(표 III - 1)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사역 내역	49
(표 III - 2) 장애인복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회	51
(표 IV - 1)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 여부	53
(표 IV - 2) 설문 응답자의 연령	54
(표 IV - 3) 응답자의 직분	54
(표 IV - 4) 응답한 교회 성도 수	55
(표 IV - 5) 응답 교회의 장애인 성도 수	55
(표 IV - 6) 응답한 교회의 연간 예산	56
(표 IV - 7) 지역적 특성	56
(표 IV - 8)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57
(표 IV - 9)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여부	58
(표 IV - 10) 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계획 여부	58
(표 IV - 11) 수혜 받는 장애인의 종류	59
(표 IV - 12) 장애인을 선정하는 방법	60
(표 IV - 13)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61
(표 IV - 14) 장애인 복지 사업의 사역자 현황	62
(표 IV - 15) 장애인 복지 사업 담당 기관	62

(표 IV - 16) 장애인을 위한 예산 결정권	63
(표 IV - 17)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년간 예산	64
(표 IV - 18) 장애인을 위한 예산 모금 방식	64
(표 IV - 19)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65
(표 IV - 20) 재정의 부족을 응답한 교회	67
(표 IV - 21) 1995년 전국 장애인 추정수	68
(표 V - 1) 장애 인부서의 사역 내역	73

I. 서론

1. 연구 목적

장애인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천대받아 왔고 사회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유린당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 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장애인들을 멀시 천대하거나 차별하여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버리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인 낡은 부정적 장애인관과 사회 의식으로서의 차별 관념이 팽배해 있으며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장애인의 추한 모습이 집 값을 떨어뜨리고 자녀 교육에 해롭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몰아내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멀시와 천대를 받아 오고 있으며,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이 찍혀 있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집안 망신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깊이 만연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이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한된 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펼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실시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 또한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을 포

1) 예를 들면 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입학 제도이다.

특례 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시설 보수비도 지원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만 만들어 대학에 강요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대학의 편의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장애인의 불편함은 각자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함한 저소득 가정을 관리하며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일이 너무나 과다하기에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실정이며, 지역 사회의 전달 체계로 복지관과 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첫째는 인력의 문제로 유급 사역자는 극히 소수이며 이들이 요보호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봉사자의 개발과 이를 계속 지속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재정의 문제이며, 셋째는 접근성의 문제이다. 즉 복지관이나 봉사센터의 대부분이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설치 운영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접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쉽게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들어내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민간 단체 중 하나인 교회는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에는 이 보충적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교회에는 유리한 접근성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모든 동네, 지역 사회에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느 곳에 있는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동네에 있는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둘째는 교회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 당위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즉 성경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고, 교회에서 현재는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교회 차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또한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교회에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의 능력은 재력과 인력, 그리고 조직력과 공간 등을 포함한 의

미이다.

이런 여건을 갖춘 지역 교회들 역시 현재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문지식과 전문 인력을 통한 사역이기보다는 금전 및 현물 제공과 같은 단순 구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많은 교회는 성경의 사상과 가르침, 좋은 전통을 무시하고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가장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장애인들을 교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제외시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애교회로 만들어 놓았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며 사랑으로 돌봄의 사역이었다면 당연히 오늘의 교회도 길잃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 주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치료하고 화해시키는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일을 외면한다면 교회로서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역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며, 한 걸음 더 나가 현재 단순 구제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장애인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성경적 당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현재 지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개입 여부를 실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지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잘 실시하는 교회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교회에서보다 나은 사역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사역에 대한 개념, 특성 등의 일반적인 사항과 장애인 복지의 흐름, 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의 당위성 등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문헌과 일반 논문 등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현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전 지식은 이미 발표된 자료와 여러 가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조사, 분석하였다.

2) 조사연구

(1) 조사 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할당표집으로 하였다. 먼저 교회의 경우 모집단을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의 장로교 합동 측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본 교단이 가장 보수적이면서 성경 중심으로 나가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교단 중에서 대표적인 교단 중의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교단이기 때문이다. 모집단 중에서 임의로 5개의 노회²⁾를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 약 15개의 노회가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과 비중을 고려해서 다음의 5개의 노회를 임으로 먼저 선정하였다. 서울노회, 중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동인천노회.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질문지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사전에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교회 2곳을 방문하여 면접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질문지이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1번에서 9번이 있다.
- ②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문항이 10번에서 12번이 있다.
- ③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교회에 대한 문항은 13번에서 59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류는 아래의 (표 I - 1) 같다.

(표 I - 1) 설문지의 내용 분석

	간접적인 사역	직접적인 사역	
		장애인 부서	장애인 교회
일반적 현황		25 - 26	43 - 44
대상	14 - 17	27 - 31	45 - 50
급여	18	32	51
전달체계	19 - 21	33 - 35	52 - 54
재원	22 - 23	36 - 37	55 - 56
기타	24	38 - 42	57 - 59

(3)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본 연구는 각 봄 정기 노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직접·간접 방문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비장애인 교회 2곳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교회 2곳을 방문하여 개인 면담을 통하여 실증적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백분율의 단순 빈도로 응답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

을 분석하였고, 항목에 따라 교차 분석과 서술적인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3) 분석틀

지역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의 사역을 분석하는 준거틀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된 분석틀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인 대상(Allocation), 급여(Provision), 전달체계(Delivery system) 및 재원(Finance)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³⁾. 이 분석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즉 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선별주의로 할 것인지, 보편주의로 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으로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급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급여의 종류에는 추상적이고 제한된 종류의 서비스로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지역교회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되 공공기관을 통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공사 혼합으로 할 것인지 등 서비스를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급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것

3) Gilbert &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New Jersey : Prentice - Hall, 1986, pp. 37 - 40.

이다.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나타난 분석틀을 도입하여 지역교회가 장애인의 사역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조사 대상 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측을 중심으로 임의로 서울과 경기도를 지역으로 배경으로 하는 5개의 노회를 선정하였기에 합동측 전체의 교회, 또는 다른 교단을 포함한 모든 교단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는 교회와 장애인 복지 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음에도 이 차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접목시키려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은 현재의 교회에 대한 현대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흐름의 입장에서 좀 더 심층적인 비교 평가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험하여 좀 더 발전된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개념 및 현황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장애인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쉽게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장애는 원인이나 유형, 그리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어떤 입장에서 또는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에 많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와 지리적인 차이나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도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로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여러 가지 입장 또는 측면에서의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UN 권고에 나타난 장애 개념

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 12. 9일)은 장애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적 기반과 준거틀을 선언하면서 제1조에서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으로 인하여 이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이 UN이 정의한 장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며, 1980년 WHO에서는 장애를 세 가지 차원 즉 심신의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한 이래 1983년 세계 행동 계획 등 UN의 각종 선언에서 장애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⁴⁾

WHO의 세 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면, 장애 발생의 과정은 처음에는 질병(disease)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Impairment)을 입게 되고, 이에 손상된 부위는 고유한 능력을 상실(Disability)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불이익(Handicap)이 따른다는 것이다.

가. 손상(Impairment)

손상은 심리적,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의학 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손상은 전문가적 결정으로 이는 증후나 증상, 검사실 소견 또는 심리적 검사에 입각해서 평가된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나 의미 있는 행동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손상은 평가 당시 이 손상이 변동 안될 것으로 생각되거나 진행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한다.

나. 장애(Disability)

장애란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이나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활동하는 능력의 결여 또는 제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로 다리를 손상 당한 사람은 보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장애라고 보는 것이다.

다. 사회적 불리 (Handicap)

4) 남상만 외, 「장애인 복지개론」(서울: 홍익제, 1997), p. 40.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각자의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른 일상생활의 수행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즉 이것은 비장애인은 이용 가능 하지만 장애인은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 대한 문화적·물리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로 다리를 상실한 사람은 보행 능력에 있어서 장애를 입었다. 이에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취업, 스포츠, 여가 생활 등)을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저하를 조장하는 사회적인 환경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2) 각 국의 장애 개념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법은 세 가지가 있다.⁵⁾

가) 사회보장법 (The Social Security Act)

1935년에 제정된 동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소득 활동에 방해가 되어 현재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다.

나)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1920년 직업재활법으로 제정되어 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된 법률로 이 법

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비교 장애인 복지 정책」 (서울: 일진기획, 1996), pp. 8-10.

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자,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러한 자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 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고용 가능성 면에서 기능적인 능력의 상실로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지적한 것이다.

다) 장애인 법(the American Disability Act)

1990년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 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 활동'이란 자기 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한다. 그리고 '간주된다'는 것은 주요 일상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다. 또한 기록이 있는 자의 예로는 암이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란 모든 생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또는 다음과 같은 신체 체계(신경적, 근골격적, 특수 감각 기관적, 생식기적, 소화기적, 비뇨기적, 피부과적, 혈액 및 임파적, 내분비적) 중 한 가지 이상에 영향을 주는 해부학적 손실, 정신지체, 유기체적 두뇌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 등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발달장애인법과 교육법에서도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 개념은 미국 장애인법(ADA)의 정의를 따른다. 그리고 장애 판정은 보건·교육·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 기관과 연방사회보장국 장애인 판정 위원회에서 판정하며 위원은 의료인 및 전문가로 사회보장국에

서 위촉한다.

나.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을 보면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⁶⁾

- ① 이동력
- ② 손기능
- ③ 신체 협응력
- ④ 지속력 :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 ⑤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 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 ⑦ 신체적 위험에 대한 자각력

다. 일본

일본장애인기본법(1994)에 보면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어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장애 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은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부여받은 자이며, 종류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심장·취장·호흡기 기능장애, 음성·언어·저작 기능장애, 직장·소장·방광 기능장애 등이 있다. 그리고 정신박약인 복지법, 학교 교육법(1947)과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정신박약인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저연되고 그 때문에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기의 신변에 대한 처리 또는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정신보건법

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앞의 책, p. 60.

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 분열병,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 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⁷⁾

(3) 우리 나라의 장애 개념

우리 나라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두 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가.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법률로써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제 2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1993. 4. 20)을 보면 장애인의 기준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개 장애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 2조).

나. 특수 교육 진흥법

1977년에 제정되어 1994년에 개정된 법률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자폐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7) 남상만 외, 앞의 책, p. 47.

8) 박옥희, 권중돈,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 170-174.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 개념을 정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을 장애 개념으로 본다.

2) 장애 유형 및 특성

장애 유형은 그 정의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 장애 유형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체장애

가. 개념

지체장애는 사람 몸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를 동반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지체장애라고 한다. 그러나 골절이나 근육의 파열상 등으로 지체의 운동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급성 또는 아급성(亞急性) 질환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체 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는 지체장애라고 보지 않으며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지체장애라고 한다.⁹⁾

나. 분류 및 발생 원인

가) 소아마비

소아마비(小兒癱瘓)는 바이러스균이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 척수전각세포를 파괴시켜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9) 남상만 외, 앞의 책, pp. 59-66.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소아 때 발생하므로 소아마비란 병명이 붙었으나 청년기나 성인에서 발병할 수도 있다.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소아마비 예방 접종이 잘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소아마비 장애인은 지능은 정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하지에만 침범하게 되어 상지는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아마비의 재활치료는 대부분 마비된 하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나) 뇌성마비

뇌성마비(腦性麻痺)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생존 출산아 1,000명당 6~7명꼴로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뇌성마비의 발생은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정상 분만보다는 조산이나 미숙아에게 그 발생률이 높다. 또한 출산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 결핍, 임신 초기(대개 3개월 이내)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연탄가스 또는 약물에 중독 되었을 때에 나타난다. 또한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에도 발생한다.

뇌성마비의 주증상은 근육의 마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 행동 등 여러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뇌성마비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약 70% 정도에서는 지능이 떨어져 학습은 물론 사회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 뇌졸중

뇌졸중(腦卒中)은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몸의 반대 측 절반에 마비가 온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신불수, 또는 편마비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중풍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뇌출혈) 뇌에 피가 고이거나 이와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뇌경색)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어 나타난다. 전에는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 많았으나

점점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마비이다. 마비는 잠자는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뇌졸중은 여러 종류의 다른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로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 능력 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안면 신경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라) 척수 손상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 부위 이하에서 마비와 이에 따른 여러 신경증상이 나타난다. 척수 손상(脊髓 損傷)은 종양(암), 척추 결핵, 혈관 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통사고, 산업 재해, 또는 운동경기 중 부상 등 외상에 의해 나타난다.

주증상은 마비이며, 그 밖에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대장의 증세가 있어 소·대변을 가릴 수 없으며, 체온과 땀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척수 손상 장애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요로 감염과 욕창 그리고 마비 부위의 경직을 들 수 있다.

마) 사지 절단

사지 절단은 사지의 일부를 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하지 절단의 경우에는 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상지 절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과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근래에 의지 제작 기술이 향상되었고, 많은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되어 절단자도 의지를 착용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외관상 문제 때문인지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심리적 갈등이 심한 듯하다.

절단은 선천적으로 태아 시절에 발육 부진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으로 외상에 의하여 절단되었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로 절단한 경우이다. 외상으로 인한 절단

은 대체로 교통사고, 산업 재해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흔히 동맥경화증, 벼어거씨병, 당뇨병, 합병증 등 주로 혈액 순환장애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바) 관절염

관절염은 대개 관절 연골의 파괴와 관절 주위 조직의 유착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관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관절염은 원인 및 발생기전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데 흔히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관절염으로는 퇴행성 관절염과 감염성 관절염 등을 들 수 있다.

사) 신경근골격계 손상(후유증)

기계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한 외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외상의 약 2/3는 상·하지의 신경근골격계에서 일어난다.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근골격계 손상으로는 골절, 신경손상, 인대나 건(힘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손상 부위에 대한 치료는 쉽지만 마비, 통증의 지속, 관절 강직 그리고 변형 등 여러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장애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 근이영양증

근이영양증이란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고 점차 힘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 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유전에 의해 발생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이영양증 중에는 가장 흔하며 가장 경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듀체네형 근이영양증이 있다. 이는 남자에게만 나타나며 대개 3~5세에 시작된다. 처음에는 무릎 관절에 힘이 없어져 자주 엎어지며 차차 충계 오르내리기가 힘

들어 진다. 외관상 무릎 위 대퇴부 근육이 위축되어 가늘어지고 반대로 무릎 아래 종아리 근육이 굵어지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보조기와 목발로 걷게 되며, 12~15세 정도가 되면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 대부분은 20~25세에 이르러 심장병이나 폐염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2) 시각장애

가. 개념과 분류

시각장애란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및 그 정도에 둔다. 그리고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 착용 후 측정한 교정시력으로 한다.¹⁰⁾

가) 맹(盲)

맹이란 좁은 의미로는 시력이 0인 자를 말하나 넓은 의미의 맹은 한계가 일정하지 못하여 각 나라마다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¹¹⁾ 우리 나라는 일반적으로 교정시력 0.05 이하를 실명이라 하고, 이 중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의 구별도 되지 않을 경우를 전맹이라 하고, 밝고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 있으나 1m 앞의 손가락의 수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이라 한다.

나) 약시

약시란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불편한 대로 영위할 수 있으나 책에 실려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는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4이상에서 0.3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10) 김중대, 「장애자 복지론」 (대구: 홍익출판사, 1989), pp. 49-52.

11) 독일에서는 시야의 결함으로 1m 이하의 것을 판별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대체로 양안 지수가 1m 이상의 것을 판별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들은 보통의 교과서에 의한 교육이 상당히 곤란하나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발생 원인

시각장애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하거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등의 여러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화상, 화학 물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영양 결핍, 약물중독에 의한 경우도 있고 드물게 나타나지만 유전성 질환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난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선천적 원인이 4.4%, 후천적 원인이 87.9%, 원인을 모르거나 가타가 7.7%로 나타났으며, 후천적인 경우 수정체 질환 20.6%, 퇴행성 장애 12.5%, 사고 및 외상 11.9%, 녹내장 및 안 질환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청각장애

가. 개념과 분류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 난청(hard of hearing)과 농(deaf)으로 구분한다.

가) 난청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35~69dB인 자를 난청이라고 한다.

나) 농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음자극에 의해서도 청각 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 있지 않거나 청각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로서 일반적으로 70dB 이상인 자를 말한다.

난청과 농은 다같이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으로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농은 보청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 발생 원인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내이 질환 그리고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각 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다.

(4) 언어장애

가. 개념과 분류

언어장애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 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 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세울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 기관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 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언어 장애인이라고 한다.

나. 발생 원인

언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출생 후 성장하는 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자신이 들은 여러 소리를 구별하고 그 소리를 모방하고 변화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습득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언어장애의 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므로 그 원인을 단적으로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 지적 요인

언어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와 크게 관련이 있다. 우리는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지적 능력과 어휘수, 발음 문제, 언어 완성 등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언어와 지적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인 지능, 사고, 지각, 기억력, 주의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나) 신체적 요인

많은 신체적 요인들은 처음에는 단독으로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되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환경적 요인까지도 언어장애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되는데 신체적 요인은 크게 감각 기능, 신경계통, 언어 운동 기능장애가 있다.

다) 환경, 정서적 요인

여러 환경, 정서적 요인 중에서도 가정 환경은 유아의 언어 능력 발달과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유아기의 언어 습득 기간을 주로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유아의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면 언어에 관한 흥미 부족, 이해 곤란 등의 언어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12) 남상만 외, 앞의 책, pp. 57-58.

(5) 정신지체

가. 개념과 분류

사람이 생각하고 사물을 판별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등 지적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여 지능이라 하며, 정신지체란 이러한 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곤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달 시기 즉 11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WHO에서는 정신지체란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다든지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³⁾

가) 경도(mild mental retardation)

지능지수가 50부터 70인 자로 정상인과 외모로 구별할 수 없으며 또한 빨리 진단되지 않아 소아기가 훨씬 지난 뒤 혹은 입학한 후에 발견되는 수가 많다. 이들은 교육이 가능하고 단순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직업 생활이 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도 사회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

나) 중등도(moderate mental retardation)

지능지수가 35에서 49까지를 말하며 훈련 가능급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충분한 자조 능력과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직종에서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

다) 중도(severe mental retardation)와 최중도 (profound mental retardation)

지능지수 34 이하를 말하는데 이들은 일생 동안 보호와 간호가 필요하다. 이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이상이나 비장애인과 다른 양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생시 곧 진단이 가능하다.

13) 정진모, 「사회복지사양성교육12주반」 「정신지체인복지」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97), pp. 293-298.

나. 발생 원인

정신지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원인으로 밝혀진 것만도 250여 개종이 된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과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가) 생물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은 문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유전적 원인, 산전 원인, 분만 시의 원인, 산후 원인 등 네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 내지 최중도 이상의 심한 정신지체의 원인은 이러한 생물학적 원인에 의하는 수가 많으며 신체적, 생물적 원인으로 오는 정신지체의 경우는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① 유전적 원인

유전적 원인이라 함은 정신지체인이 아기를 임신하였을 당시 이미 그러한 원인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임신이 되었을 순간에 이미 유전인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전인자를 통해서 모든 발달과 능력의 기초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런 유전인자 자체에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특정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며, 염색체 수의 이상이란 우리 몸에는 23쌍의 염색체 즉 모두 합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정신지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몽골리즘¹⁴⁾ 혹은 다운씨증후군¹⁵⁾은 46개의 염색체 대신 47개의 염색체가 있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모두 한 쌍씩 있는 염색체 중 제 21번의 염색체가 한 쌍 대신 3개가 있는 경우가 된다.

② 산전 원인

임신 9개월 동안 태아는 단세포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

14) 겉으로 보아 언뜻 몽고족의 얼굴과 비슷하다는데서 기원한 것이다.

15) 이것은 1867년에 다운이라는 학자에 의하여 처음 기술되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는데, 태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신지체의 혼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약물중독에 걸렸을 때, 혹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 또한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틀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분만시의 원인

조산은 출생시 신생아의 무게가 2.5Kg 이하일 경우 혹은 임신 기간이 37주 이하일 경우를 말하는데 조산아는 항상 정신지체의 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조산아가 정신지체가 되지는 않지만 몸무게가 1.5Kg이하, 혹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하고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정신지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

④ 출생 후의 원인

출생 후 특히 생후 1년 동안에 일어난 감염이나 뇌의 손상은 항구적인 정신적 신체적 핸디캡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 이외에 뇌의 타박상, 약물중독, 뇌종양, 그리고 심한 간질병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감염으로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홍역이나 수두, 백일해 등이 잘못하여 뇌염이나 뇌막염으로 진전될 수 있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정신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사회 · 심리적 원인

대부분의 경도 정신지체와 상당수의 중등도 정신지체에서는 이상에서 말한 생물학적 · 의학적 원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경도의 정신지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경도의 정신지체가 중도 이상의 심한 정신지체 장애인에 비하여 사회 ·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하층의 사람들에게 많다. 즉 이들에게서 생물학적 · 의학적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나 그들이 자라난 환경과 경험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했다는 것이다. 즉 자극이 없었고 흔히 잘 보살피지 않았고, 환경에 문제점이 있

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지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간접적 증명이 된 것이다.

3)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 수

한국 장애 인구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제기획원 통계국(현재의 통계청)이나 보건사회부(현재의 보건복지부) 등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였고, 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본격적 조사는 1980년 심신장애인 실태조사이며, 이후 1985년도에 전국 심신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199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¹⁶⁾

이에 따라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 나라 장애 인구 및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건강 상태도 조사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1,053천 명이다.

(표 II - 1) 장애 인구의 변화

(단위 : 천 명)

년도	1 9 8 5	1 9 9 0	1 9 9 5
장애인구	9 1 5	9 5 6	1 0 5 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분류별로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표 II - 2) 장애 분류별 분포

(단위 : 천명, %)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중복	계
장애 인구	614	58	113	23	40	205	1053
비율	58.3	5.5	10.7	2.2	3.8	19.5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장애인은 전 인구의 2.35%로 1990년에 비해 0.13% 증가하였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표 II - 3) 장애인 출현율 비교

(단위 : %)

국가	호주 (1987)	독일 (1991)	일본 (1991)	한국 (1995)
장애인 출현율	15.6	8.4	3.5	2.3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2) 장애 원인과 사회 경제적 실태

가. 장애 원인별 분포

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질병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서 88.1%이며, 원인 미상이 6%, 선천적 원인은 3.4%로 나타나 과거 조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장애 종류별로 세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 - 4) 장애 유형별 발생 원인

(단위 : %)

장애 원인	지체	청각	언어	정신	시각	계
선천적원인	1.0	3.4	11.4	24.2	3.8	3.4
출생시원인	1.1	1.3	1.1	13.2	0.6	1.9
후천적원인	95.7	85.6	51.6	32.8	89.2	88.1
원인을모름	2.2	9.7	35.9	29.8	6.4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나. 교육 정도별 분포

재가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을 졸업 또는 재학 중인 최종 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32.5%로 가장 많고, 초등 학교 졸업이 2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교육 정도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가 장애인이 3.2%가 수화, 점자 등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 5) 재가 장애인의 교육 정도

(단위 : %, 명)

구 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전 체
미 취 학	0.2	-	0.3	4.0	5.1	0.7
안 다녔음	28.8	44.3	50.0	18.7	25.4	32.5
초등 학교	30.1	26.8	24.6	29.0	26.2	28.8
중 학 교	15.4	9.7	9.1	17.8	10.9	3.8
고등 학교	0.4	3.4	4.2	6.0	27.0	3.2
전문 · 초급대	1.6	0.4	0.2	4.3	-	1.3
대학교 이상	5.6	3.2	2.9	3.8	-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695,060	73,104	152,747	36,371	69,447	1,026,72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다. 경제 활동 별 분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 장애실태 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태는 월 평균 가구 총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50만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고, 50 - 90만원이 약 29%로 전체 가구의 60%정도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0만 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 - 6)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 %)

금액	소득	지출
50 만원 미만	30.9	38.8
50 - 99 만원	28.9	36.5
90 - 149 만원	19.6	16.2
150 - 199 만원	10.4	4.7
200 - 249 만원	5.3	2.7
250 - 299 만원	1.5	0.5
300 만원 이상	3.3	0.5
계	100.0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을 보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6.2%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18.3%, 기타 가족의 지원이 13.4%, 생활 보호 4.0% 이 순으로 나타났다. 95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 가구원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기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 보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 - 7)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단위 : %)

주 된 수 입 원	비 율
가구주의 근로소득	56.2
가구원의 근로소득	18.3
연금이나 퇴직금	2.2
재산소득 (부동산)	2.6
저축이나 증권 수익	2.7
생활 보호	4.0
가족(친척)의 지원	13.4
기타	0.5
계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대한 조사에서는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가족 의존형이 68.8%, 자립형이 25.5%, 사회 의존형이 4.9%로서 가족에 주로 의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장애인 생활 보호 대상 가구는 전체 생활 보호 가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자.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 중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31.8%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장애인 취업률은 38.4%였다. 장애인의 취업 여부를 장애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 - 8) 재가 장애인의 취업 상태

(단위 : %)

취업 여부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계
취업	31.5	27.6	37.7	32.7	25.4	31.8
미 취업	68.5	72.4	62.3	67.3	74.6	6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직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단순 근무직 근로자가 23%,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 17.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의 문제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31.8%만이 취업하였으며,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증 장애인이고, 중증의 경우는 거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 장애인의 경우도 월 평균 소득은 68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은 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으며, 또한 취업한 경우에도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비,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¹⁷⁾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은 더 적은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는 교육의 문제이다. (표 II - 5)에서 지적했듯이 장애인의 경우 미취학이 32.5% 초등 학교 졸업이 28.8%로 61.3%가 초등 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취학연령에 있는 전체 장애인의 추정치는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교육의 수혜율은 겨우 20%정도이다. 특히 의무 교육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취학률조차도 각각 19.7%와 11.97%로 나타나고 있다.¹⁸⁾

17)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지체(160천원)와 언어장애(137천원), 그리고 시각장애(86천원)와 청각장애(76천원)으로 평균 106천원이 추가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서울: 도서출판 함께걸음, 1995), p. 23.

셋째는 사회적 냉대이다. 우리 나라 국민의 특성 중의 하나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도와준다. KBS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돋고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이웃으로 한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끔 보는 것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곳에서의 반대 운동이다. 그러니 장애인들은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냉대를 받으며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넷째는 장애인의 가족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을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등 다양한 문제를 품고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의 문제는 다수의 문제이며, 복지의 수준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까지 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소외감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경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

1) 장애인에 관한 성경의 사례

성경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약 160회 나온다.¹⁹⁾ 성경에 나오는

19) 김성곤,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통합 사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29.

장애인에 관한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문자적으로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육체적 장애인의 의미로 나오는 것과, 둘째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으로 영적 이해, 도덕성 등의 부족이나 무모함, 영적 무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 등을 나타내는 영적 장애인의 의미로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들의 장애 원인을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삭, 야곱, 엘리 등은 노쇠함으로 시각장애를 가졌고, 삼손과 시드기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엘루마 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 함으로 시각장애를 입었고, 또 네 사람에 의해 들려 왔던 중풍 병자도 죄로 인하여 중풍 병자가 되었다. 또한 소돔 백성과 아람 군대들, 그리고 여로보암 등은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한 별로 일시적 장애를 겪게 되었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어릴 때의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고, 문등병자, 중풍병자 등 많은 장애인들은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귀신들려 병어리 된 자, 귀신들려 병어리 된 아들,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 등은 귀신들림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장애의 원인 또는 경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장애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 함으로써 받게 되는 형벌로서 이해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²⁰⁾

20) 목회정보연구소에서 제작한 「로고스바이블 3.0」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1) 구약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의 사례

첫째는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사례이다. 창세기 29장 19절에서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작은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으며, 레위기 21장 16-23절에서는 장애인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제 내용이 있다.

둘째는 죄의 대가로 장애인이 되는 사례이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 두 눈이 뽑힌 사건(왕하25:7), 여호와를 거스린 경우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므로 두 눈이 뽑힌 사건(삿16:21),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모독했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사건(창19:11) 등이 있다.

셋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무능력한 자로 취급하여 조롱과 모욕을 주는 사례이다. 사무엘하 5장 6-8절에 나오는 것으로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 할 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물리치리라고 조롱한 것은 장애인들의 무능력을 은유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넷째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본 사례이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제19:14)”, “소경으로 길을 잊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찌니라(신27:18)” 등은 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건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는 사례이다. 출애굽기 4장 11절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는 말씀을 보면 건강한 인간을 만든 하나님 이 또한 장애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는 소망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례이다. 예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 날에 귀 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면,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으며(사29:18, 32:4, 35:5-6, 42:7), 시편 기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 이 고독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의 사례

신약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장애를 죄의 대가로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중의 대상으로 본 사례이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막8:5-13), 부모가 자녀를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경우(마17:14-18, 막9:17-29, 뉘9:37-43),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장애인 을 예수님께 데려온 경우(마4:24, 마12:22, 막8:22-26) 등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에 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친 사건들(마12:9-13, 막3:1-5, 뉘6:6-10)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식보다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장애인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인용하신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심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본 사례이다. 요한복음 9장 1-13절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에 관한 기사를 보면, 제자들이 그의 장애가 누구의 죄에 대한 대가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애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28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 7-10절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은 곧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의 몸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다.

넷째는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으로 본 사례이다. 누가복음 14장 12-14절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는 권력자나 부자들, 귀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해타산과 무관하게 진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애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본 사례이다. 이는 사도들이 구걸하는 장애인을 치유해 준 사건에서 나타난다. 사도행전 3장 1-1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동정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인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이 인간에게 훌륭하게 하신 행동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성경적 근거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신앙과 모든 생활에서 정확무오하며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있다. 이에 모든 사역의 방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성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와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에서 근거를 찾고자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취급했다. 당시에는 성인 남자 중심의 부족사회였기에 어린이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으며, 자기를 보호해 줄 혈연이나 자연 공동체가 없는 나그네도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약자였다. 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였으며, 재산 상속권도 없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제도를 제정하여 주셨다.

성경의 약자 보호 제도를 오늘날 장애인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구약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현대적 의미가 장애인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여권이 신장되어 과부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나그네도 국제법이 발달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오늘날에는 약자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두 말 할 것 없이 장애인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 계층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소외감과 신체적인 불편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²¹⁾

성경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제의 십일조

신명기 14장 28-29절과 26장 12-15절에 보면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 가운데 3년마다 한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십일조를 드렸다. 이것을 구제의 십일조라고 한다. 하나님께 바쳐진 구제 십일조는 저축하여 두었다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나.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제도이다. 이때 저절로 생산되는 곡물과 포도 등의 소출은 땅 주인과 종들과 나그네와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었다.(출23:10-11, 레25:1-7; 25:18-22). 이러한 제도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6년째에는 3년 쓰기에 충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레25:20-21). 또한 안식년이 되면 과거에 꾸어준 모든 빚을 면제해 주고 히브리 종들도 자유를 얻는 제도가 있었다(출21:2-6, 신15:1-3). 이를 면제년이라고도 했다.

또한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후에 오는 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다. 이 해는 종이 해방되고, 판 땅도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등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해이다(출21:2-6, 레25:23-33; 39-41; 신15:1-3; 12-17). 이것 역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21)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6.

다. 추수법

이스라엘에는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추수법이 있다(레 19:9-10; 23:22, 신 24:19-21, 롯 2:23).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다. 또한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뭇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않았으며, 포도원의 포도를 땀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않았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배려였다.

라. 종교적 절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유월절과 맥추감사절인 초실절²²⁾과, 추수감사절인 초막절²³⁾이다. 이 절기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자녀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날이였다. 즉 불쌍한 사람들인 종과 객과 과부를 돌보면서 접대하는 절기인 것이다. 또한 유대인들이 바사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조카이며 왕후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부림절은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구제하는 날이었다(예 9:20-22).

마. 권력을 가진 자의 책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다. 재판에 있어서도 약한 자라고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출 23:6, 신 24:17, 시 72:12-14). 힘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22)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서 맥추절(출 23:15-16), 오순절(행 2:1)이라고도 하며, 밀의 처음 익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23)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출 23:16; 34:22)이라고도 부르며,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의식을 거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호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쫓아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의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선포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다. 여기서 세 번째 치료하는 사역은 장애인과 밀접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역이다.

나.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장애인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장애인을 치료하셨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마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적으로 내가 장애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반문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다.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깊이 사랑하시므로 장애인 치료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의 눈을 고치실 때 민망히 여기시어 고치셨으며(마 20:29-34),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어눌한 한 농아

인을 만나셔서 그를 고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고치셨다(막 7:31-37).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의 장애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긍정적인 장애인관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긍정적인 장애인관으로 바꾸셨다.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하나님 의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긍정적인 장애인관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5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여 소리지르는 맹인 바디매오를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냉대하여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매오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신 후 고쳐 주셨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만나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장애인관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편견을 제거해 주시며,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다. 따라서 장애인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장애인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3.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지역교회에서 지역 사회의 복지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보면 두 가지의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며, 다른 하나는 전도해

서 교회 내로 들어온 장애인을 어떻게 교회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이다.

사실 교회에서 장애인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역이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에 연구에 초점이 이곳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다른 비장애인과 달리 단순히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에서 끊나서는 안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개입하여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가 1994년에 하나 있었 다²⁴⁾.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정적인 장애인관과 소극적인 복지의식이다. 동정과 자선과 자혜와 차별이 한국 교회의 장애인관을 대표하고 있다. 즉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복지의식이 부족하여 교회가 직접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재원의 부족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사회사업에 필요한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교회나 장애인 선교회는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운영의 전근대성이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장인인 선교회들이 대부분 임의단체여서 조직과 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에 단순 구제 차원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 인력의 부재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24)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는 긍정적인 장애인관과 적극적인 복지의식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후원 사업의 개발로 마케팅 차원에서 지속적인 후원 개발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후원자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셋째는 교회 사회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즉 교회는 사회사업의 방법으로 도입하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 봉사 사업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언급한 ‘한국 교회’는 지역교회(Local-church)와 선교 단체(Para-church)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지역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반면에, 선교 단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선교 단체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다. 예를 들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외 선교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선교하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단체도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인 선교 단체도 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한국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취급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있어서는 지역교회(Local-church)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며,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장점과 비교하여 지역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II. 한국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1. 한국 교회 장애인 복지 사업의 발전 과정

1) 선교사의 장애인 복지 사업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 이들은 복음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즉 이들은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1884년 고종 황제가 선교 사업으로 의료와 교육 사업만을 인정한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기독교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선교 본부는 기독교 전도에 앞서 질병과 무지와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펼치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기 때문이다.²⁵⁾

선교사들은 먼저 의료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병원들을 설립하여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당시에 설립된 병원은 광혜원(1885년), 정도제일병원(1885년), 보구여관(1887년, 이화여대 부속병원), 평양 기흘병원(1892년), 제중병원(1895년), 원산 구세병원(1898년), 세브란스병원(1904년), 전주 예수병원(1904년), 평양 연합기독병원(1905년) 등이다.²⁶⁾

평양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로제타 S 훌(R. S. Hall)여사가 처음으로 맹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평양에서 기독교 신자의 딸인 오봉례라는 맹인 소녀를 만나 점자 지도를 하면서, 자신이 고안한 뉴욕식 한글 점자(평양 점자, 조선 훈맹점자)로 조선어 기도서, 십계명 등을 직접 점역했다. 1900년부터는 맹 교육을 위해서 맹아동 4명을 평양의 정진여학교에 입학시켜 통합 교육을 시도했다. 그 후 1903년 평양 여자 맹인 학교가 평양 기흘병원 내에

25)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서울: 성경읽기사, 1987), pp. 44-47.

2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서울: 기독교문사, 1989), pp. 194-196.

정식으로 설립되어 교장에 흘 여사가 취임하였으나, 1907년 미국 선교사 포르가 창립한 평양 맹아학교와 합병하였다.

농아인에 대한 사역은 1909년 선교사들에 의하여 평양 농아학교가 세워지면서 농아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맹아학교 안에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맹아 교육과 농아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아인 사역은 장애의 특성상 맹인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1960년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인 베티헨리 여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최성만 목사와 함께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를 창립하였다. 또한 국제 특수 선교회 소속인 호주의 네빌뮤어(Neville Muir) 선교사는 1978년 한국에 들어와 1979년 인천 임마누엘 농아교회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8개의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였고, 농아인들의 자활을 위해 농아인 자활 봉제소와 에바다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²⁷⁾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역은 1897년에 페리(Jean Perry) 양이 9명의 선교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불구 아동을 위한 집을 서울에 세웠다. 1901년에는 23명의 장애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글과 한문, 창가, 산술, 지리, 재봉, 기타 기초 지식들을 가르쳤다.²⁸⁾

1959년 캐나다 연합교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온 구애련 선교사는 물리치료사로 연세 대학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감당하였고, 1959년 북장로교 선교사인 아담부인이 연세의료원에 소아재활원을 개설하여 지체장애인아동을 위한 사업을 구애련 선교사와 함께 시작하였다.²⁹⁾

이처럼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선교사업보다 소홀하게 다

27)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45.

28) 정형석, “장애인선교현황” (제2기 재가장애인선교복지원 양성교재, 한국밀알선교단, 1992), p. 116.

29) 유태종,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95.

루지 아니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교하는 등 장애인 선교에 대한 좋은 전통을 세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특수교육과 복지사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이끌어 주었다. 또한 고아와 양로 사업을 비롯하여 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 사업 등 우리 나라의 복지 사업에 크게 공헌하였다. 지금도 80% 이상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기독교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등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의 사회사업에 금자탑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다.

2) 한국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한국 교회에 의하여 시작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선교사들이 세워 놓은 좋은 전통 위에서 출발하였지만 사실은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1) 개인과 기관의 활동

1926년 맹인의 세종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박두성 집사가 훈맹정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1941년 성서공회에서 점자성경이 출판되었다. 1926년 승동교회 안에 맹인 전도반이 만들어져 활동하였으나 오래 전에 없어졌다.

1946년에는 전인선 목사가 기독교 대전 선교단 내에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를 설립하여 가난한 맹아들을 수용하여 복음 전도와 점자 출판물로 교양 교육 등을 1956년까지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이영식 목사는 대구에서 대구 동아 맹학교를 창설하였다.

1935년 평양노회 도제직회가 운영한 평양 맹아학교 내에서 농아인을 위한 주일예배가 있었는데 이것이 농아교회의 효시이다. 그 후 구화교육의 개척

자로 최병문 장로가 나타나 마포 구화학교를 세웠다.

1960년에 최성만 목사는 하나님 성회 소속 선교사인 미국인 베티 헨리 여사와 부산에서 부산 에바다 농아교회를 창설하였으며, 이어서 1961년에 서울에서 에바다 농아교회를 창립한 이래 지금은 20여 개의 교회로 부흥하였다.

1960년 김희동 목사는 충북 중원의 동락감리교회와 함께 장애인들을 수용 보호하기 시작해서 1969년 안양으로 이전해 오늘의 영생 사랑의 집이 되었다.

1964년 유재춘 목사는 24명의 간질병들을 위해 장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³⁰⁾

1970년 이인재 목사는 미국의 다니엘양이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한 한국기독마을을 사회복지법인 구령회로 개칭하고 정신지체 아동 시설을 시작했다.

1984년 「한국 기독교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에서는 사랑의 실천 운동 안내서라는 책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계몽적인 차원에서 끝나고 말았다. 한가지 성과는 기념 사업 차원에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원하여 수많은 맹인들에게 개안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역교회와 교단의 활동

정신지체인을 위한 주일학교는 1984년 11월 7명의 장애 아동과 5명의 교사로 시작된 소망 교회 소망부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정도의 지역교회들이 특수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 수도 교회는 1982년부터 장애 아동 상담을 시작하여 초청 프로그램과 여름 성경 학교를 하다가 장애 아동 조기 교실을 교회 안에 개원했다.

30)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 10.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선교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서울의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왕성교회, 옥인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이리 갈릴리교회, 부산 중부교회 등이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74년 대한성공회에서는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베드로학교를 개교하였으며, 1986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는 장애인 운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장애인 선교와 복지 사업에 간접 지원하고 장애인 주일에 사용할 공과를 제작하여 소속 교회에 보내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 교회는 장애인 선교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자는 의미로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였다. 즉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통합), 예수교 성결회 등의 교단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

(3) 선교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역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1970년대부터는 장애인 선교 단체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제일 먼저 설립된 기관은 1976년에 서울의 베데스다선교회와 전남 광주의 한국실로암선교회가 있다. 이 두 기관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현재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1978년에는 서울에서 김문조 박사에 의해 소망정이라는 선교단체가 창립되어 장애인을 위한 잡지인 「날개」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10여년 간 펼쳤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다.

1979년에 창립된 선교회는 서울의 새빛맹인선교회와 한국밀알선교단이다. 새빛맹인선교회는 중도 실명한 안요한목사가 창립했으며, 맹인 교회도 같이 운영하면서 다양한 맹인 사역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한국밀알선교단은 중도 실명한 이재서 박사가 학생시절에 설립하여 꾸준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전국에 10여 개의 지부를 조직하고 장애인 선교 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93년에는 한국밀알선교단이 서울에 사회복지법인 밀알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 연변에서도 장애 아동 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980대에 들어서면서는 1981년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에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창립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서울에서 지체장애인인 김양원 목사가 1981년에 세운 신망애선교회가 있다. 지금은 경기도 마석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립원에 들어가 100명이 넘는 장애인 수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83년 지체장애인인 김경식 목사가 서울에 세운 임마누엘 선교회는 1993년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재활원이 되었으며, 1984년 지체장애인인 정덕환 이 서울에서 장애인 선교와 직업재활을 목표로 세운 에덴복지원³¹⁾도 이제는 사회복지법인 근로 시설이 되었다.

이외에도 대구에 1983년에 세운 대구미문선교회, 1985년 강학석 목사가 세운 부천의 사랑선교회, 유인남 목사가 세운 인천의 다솔자립원, 1987년 김동식 목사가 세운 서울의 장애인 전도 협회, 여성목사인 홍유미 목사가 세운 미문선교회 등이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1990년대는 수많은 선교 기관들이 설립되어 지금은 150개 정도로 추정되는 장애인 선교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선교회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표들은 주로 장애인들이다.

2.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

지역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31) 정덕환, 「절망이 나를 혼들어도」(서울 : 도서출판 아가페, 1986), p. 13.

는 지역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1) 지역교회의 간접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장애인을 위한 지역교회의 사역 내용을 보면 시설 방문 및 지원, 노력봉사, 장애인 가정 상담, 수술비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 - 1)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사역 내용

사업 내용	비율 (%)	사업 내용	비율 (%)
시설 방문 및 지원	47.0	취업알선 및 훈련	5.1
노력봉사	13.4	보장구 지원	4.1
장애인 가정 상담	13.1	점자도서지원	3.4
수술비 지원	12.0	재활교육	3.1

자료 : 한국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p. 124.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사역은 일회적인 시설 방문이나 지원 등이며, 그 외의 부분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천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장애인 복지는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인 욕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하여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회봉사 사업은 장애인의 다양하고도 심각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

지가 필요하므로 교회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³²⁾ 무엇보다 지역교회는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지역교회의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한국 교회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는 24개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I - 2 참조) 이러한 사역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으로 장애인에 관심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교회의 수와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다.

사역의 내용은 교육 재활 사업이 11개로 가장 많다. 이중 장애 아동 조기 교실 운영이 10개이며, 특수학교 설립이 1개이다. 장애 아동은 주로 학령 전의 정신지체아, 정서장애인, 자폐아를 대상으로 신변 처리, 사회성 지도, 대·소근육 운동, 언어 지도, 자세교정 등을 교육하는 특수 유치원이다.

교육 재활 사업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7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복지 하는 장애인 선교를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일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즉 교회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문 기관이 아니므로 기존의 장애인 선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돋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32) 주은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실태에 관한 연구”, 충실파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p. 15.

(표 III - 2) 장애인복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회³³⁾

NO	교회명	교파	담임	소재지	사업내용
1	갈릴리	복음	이동춘	전북이리	연립주택(숙소배정)
2	갈보리	초교파	박조준	서울강남	점자 및 녹음 도서 제작
3	공주세광	기장	이상호	충남공주	사랑이 있는 모임(지원사업)
4	광장	예장통합	이장인	서울	산소망선교회 협력
5	남산	예장통합	진희성	대구	미문선교회 장소제공 및 지원
6	남서울은혜	예장합동	홍정길	서울	특수학교 설립
7	도원동	예장통합	박영철	서울용산	사회사업가 파송
8	수도	기장	김해동	서울종로	장애인아동조기교실
9	초동	기장	신익호	서울종로	장애인아동조기교실
10	영락	예장통합	임영수	서울	요양원
11	충현	예장합동	신성종	서울강남	장애인아동조기교실, 밀알협력
12	영강	기장	서재일	강원원주	장애인 목욕탕
13	온누리	예장통합	하용조	경기군포	장애인아동조기교실
14	인천	순복음	최성규	인천	장애인아동조기교실
15	새부천	기감	한재봉	경기부천	사랑선교회 장소 제공 및 지원
16	대전중앙	예장합동	최병남	대전	장애인아동조기교실
17	부산중부	기장	김용환	부산	한울직업재활원협력
18	부산삼일	예장고신	하병국	부산	부산장애인전도협회 조기교실
19	밀알	기침	박홍래	안산	장애인아동조기교실
20	군산개복	예장합동	김종석	군산	장애인아동조기교실
21	수원중앙	기침	김장환	수원	장애인아동조기교실
22	부산동	예장고신	진정득	부산	한국밀알선교단 부산지부 협력
23	진주애린	기장	최재웅	진주	컴퓨터교육 도서실
24	태백선린	기장	원기준	강원태백	장애인아동조기교실

33) 정형석, 앞의 책, p. 70.

IV. 조사 분석 결과 및 문제점

1. 조사 분석 결과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선정한 다섯 개의 노회에 봄 정기노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50개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동서울노회는 19개, 서서울노회는 22개, 남서울노회는 31개, 그리고 동인천노회는 25개이었다. 그런데 서울노회는 단지 5개뿐이어서 다시금 서울노회 산하의 25개 교회에 사전 전화로 연락을 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8개의 교회로부터 응답이 되었고, 전화로 설문에 임한 교회도 4곳이 있어서 총 17교회가 참여하게 되었다. 회수율을 보면 서울노회가 34%이며, 동서울노회가 38%, 그리고 서서울노회가 44%이고, 남서울노회는 62%이며, 동인천노회는 50%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수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설문 응답자의 전체 사항으로 보면 75%정도에 해당하는 교회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25%정도만이 직·간접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 - 1)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 여부

(단위: 개,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사역 무	13	12	16	22	22	85	74.56
간접사역	4	7	5	9	3	27(28*)	23.69
장애 부서	1	-	1	-	-	2	1.75
장애인교회	-	-	-	-	-	-	-
계	17(18*)	19	22	31	25	114	100

* 동일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사역하는 동시에 장애 부서를 운영하기에 중복된 것이다.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대부분이 남성이며 단지 2명만이 여성이다. 이는 설문지를 봄 정기노회³⁴⁾ 개최 중에 배부하였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40%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30.7%이며, 다음으로 50대(21.9%)이며, 마지막으로 60대(6.14%)이다. 응답자 중 30대와 40대가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4) 봄 정기노회란 각 교회의 담임 목사와 모든 부목사, 그리고 각 교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파송된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이다.

(표 IV - 2) 설문 응답자의 연령

(단위: 명,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30 - 39	7	2	5	8	13	35	30.70
40 - 49	2	10	12	12	10	46	40.35
50 - 59	6	6	4	7	2	25	21.93
60 - 69	2	-	1	4	-	7	6.14
무응답	-	1	-	-	-	1	0.88
계	17	19	22	31	25	114	100

응답자의 직분을 보면 담임 목사가 약 7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교역자이다. 결국 응답자 중 목사가 86%이며, 장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설문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와 장로만이 모이는 회의에 배부했기 때문이다.

(표 IV - 3) 응답자의 직분

(단위: 명,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담임 목사	10	19	21	15	19	84	73.68
부교역자	6	-	-	4	4	14	12.28
장로	1	-	1	10	2	14	12.28
집사	-	-	-	-	-	-	-
기타	-	-	-	2	-	2	1.76
계	17	19	22	31	25	114	100

(2) 응답한 교회의 특성

응답한 교회 성도의 수를 보면 100명 미만인 교회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교회가 34%이며, 1000명이상인 교회가 약 12%이다.

(표 IV - 4) 응답한 교회 성도 수

(단위: 개,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100명미만	4	6	14	8	17	49	42.98
100이상 - 500명미만	6	11	6	12	4	39	34.21
500이상 - 1000명미만	3	1	1	6	1	12	10.53
1000명이상- 2000명미만	3	-	1	5	2	11	9.65
2000명 이상	1	1	-	-	1	3	2.63
계	17	19	22	31	25	114	100

다음으로 응답한 교회에 등록한 장애인 성도의 수는 장애인이 전혀 없는 경우가 41%나 되며, 5명 이하가 4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편의 시설 등의 문제로 쉽게 접근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 - 5) 응답 교회의 장애인 성도 수

(단위: 개, %)

장애인 수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없다	4	9	13	10	11	47	41.23
1 - 5	8	8	9	15	11	51	44.73
6 - 10	5	2	-	4	1	12	10.53
11-20	-	-	-	2	2	4	3.51
20 이상	-	-	-	-	-	-	-
계	17	19	22	31	25	114	100

교회의 년간 예산 중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0.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억에서 3억 사이로 이는 20%이고, 다음으로 5천만원에서 1억 사이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1억 미만인 경우가 50%로 이는 100명 미만의 교회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V - 6) 응답한 교회의 연간 예산

(단위: 천만원, 개, %)

예산액	서울 노회	동서울 노회	서서울 노회	남서울 노회	동인천 노회	계	비율
5 미만	3	5	10	5	12	35	30.70
5이상 - 10미만	3	4	3	6	6	22	19.30
10이상 - 30미만	3	7	4	6	3	23	20.18
30이상 - 50미만	2	2	2	6	1	13	11.40
50이상 - 100미만	1	-	1	6	1	9	7.89
100이상	4	1	-	-	2	7	6.14
무응답	1	-	2	2	-	5	4.39
계	17	19	22	31	25	114	100

다음으로 응답한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보면 일반 주택지가 6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상가 지역(12.28%), 재개발 지역(8.77%), 그리고 임대 아파트 지역(7.9%)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 - 7) 지역적 특성

(단위: 개,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임대아파트	1	3	1	3	1	9	7.90
일반주택	10	13	11	21	14	69	60.53
재 개 발	1	2	4	2	1	10	8.77
상 가	3	1	2	1	7	14	12.28
공 단	-	-	2	-	1	3	2.63
기 타	2	-	2	3	-	7	6.14
무 응답	-	-	-	1	1	2	1.75
계	17	19	22	31	25	114	100

2)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회에 장애인이 없는 것이(45개) 과반수로 나왔고, 다음으로 재정이 없어서가(20개), 그리고 전문인력의 문제가(12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교회 중에서 16개의 교회는 교회에 장애인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의 교회에는 장애인이 10명이나 출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타'라고 응답한 교회 중 대부분은 관심 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장애인 복지 사업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한 응답자가 하나도 없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도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역 중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 - 8)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장애인 없기에	10	10	8	8	9	45
재정이 없어서	3	1	4	5	7	20
전문안력이 없어서	2	-	2	4	4	12
교회의 사역이 아님	-	-	-	-	-	-
기타	1	1	4	2	1	9
무응답	-	-	-	3	2	5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85명 중 79명 즉

92.9%나 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단지 3명(3.5%)만이 ‘아니요’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 - 9)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여부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예	12	11	15	19	22	79	92.94
아니요	1	-	1	1	-	3	3.53
무응답	-	1	-	2	-	3	3.53
계	13	12	16	22	22	85	100

다음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응답한 교회 중에서 43개의 교회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고, 36개의 교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래도 응답자의 반 정도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무적인 것이다.

(표 IV - 10) 교회에서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계획 여부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예	5	7	9	11	11	43	50.59
아니요	8	4	6	9	9	36	42.35
무응답	-	1	1	2	2	6	7.06
계	13	12	16	22	22	85	100

3)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교회

(1) 대상

지역교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보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교회에서 시설에 속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는 적게는 10명이며, 많게는 100여명으로 다수가 되고, 재가 장애인의 경우는 10명 이하의 소수인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사역은 시설을 대항으로 하는 곳이 12교회이며, 9교회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장애인의 종류를 보면 지체장애인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20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와 중복 장애인을 각각 6개 교회가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장애인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58%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연민의 정을 일으키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표 IV - 11) 수혜 받는 장애인의 종류

(단위: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지체	4	4	5	5	2	20
언어청각	-	2	-	1	-	3
시각	1	1	-	2	1	4
정신지체	-	2	1	1	2	6
중복장애	-	1	3	2	-	6
기타	1	1	-	-	-	2

다음으로 교회에서 장애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장 많

은 경우는 복지관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와 교회의 교역자 혹은 교인의 추천이 10개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이나 구청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복지관과 동이나 구청을 통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14곳으로 나온다. 이는 지역 사회와 호흡을 같이하는 귀한 모습이며, 이런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복지관·동·구청의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통하여 지역교회의 인력과 재력 등의 서비스를 잘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 - 12) 장애인을 선정하는 방법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대상자가 직접 요청함	-	1	1	-	1	3
복지관 등을 통해	1	3	-	5	1	10
지역조사를 통해	-	-	1	1	1	3
교역자나 교인의 추천	-	1	4	5	-	10
동이나 구청을 통해	1	-	1	2	-	4
기타	1	-	-	-	-	1
무응답	2	2	-	-	-	4

(2) 급여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연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가 각각 8개, 그리고 가사 서비스가 7개로 고르게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볍게 지원할 수 있는 가사 서비스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지만 봉사자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간병 서비스는 단지 1개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주민 교육 서비스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13)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단위 : 개)

서비스 내역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가사서비스	1	3	2	-	1	7
간병서비스	1	-	-	-	-	1
정서서비스	2	-	-	-	1	3
결연서비스	2	2	-	3	1	8
보건의료서비스	-	-	1	-	-	1
자립지원서비스	1	3	2	2	-	8
주민교육서비스	-	-	-	-	-	-
기타	-	-	1	4	-	5
무응답	1	1	-	1	-	1

(3) 전달체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8개의 교회 중에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동시에 있는 교회는 4개소이며, 실무자만 있는 곳은 5개소이고, 자원봉사자 만이 있는 경우는 5개소이다. 그리고 실무자도 자원봉사자도 없는 교회는 14개소이다. 이는 결국 교회에서 장애인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 이지 않고 임기응변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를 관리하며 사역의 지속성,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자가 없으며, 자원봉사자도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봉사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역이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에 직장이 없고, 가사에 전념하는 전업 주부들, 즉 낮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 때문이다.

(표 IV - 14) 장애인 복지 사업의 사역자 현황

(단위: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있 다	둘다	1	1	-	2	-	4
	실무자만	1	2	-	1	1	5
	봉사자만	1	-	2	2	-	5
없다		1	4	3	4	2	14
계		4	7	5	9	3	28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된 수혜자와 봉사자를 관리하는 부서는 과반수 (15개, 53.57%)가 없는 것으로 응답되어졌다. 그리고 단지 10개의 교회 (35.71%)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 15) 장애인 복지 사업 담당 기관

(단위 : 개, %)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비율
있 다	2	3	-	5	-	10	35.71
없 다	2	2	4	4	3	15	53.57
무응답	-	2	1	-	-	3	10.72
계	4	7	5	9	3	28	100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 사용처의 결정은 담임 목사(9개), 담당 부서(8개), 그리고 제직회(6개), 당회(4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 - 16) 장애인을 위한 예산 결정권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담임교역자	1	3	-	3	2	9
당회	-	-	2	2	-	4
제직회	1	2	1	2	-	6
담당부서	1	1	2	4	-	8
기타	1	1	-	1	-	3
무응답	-	-	-	-	1	1

(4) 재원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교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교회는 년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1000만원이 넘는 교회도 5교회나 되며, 7~8천 만원을 지출하는 교회도 있다. 교회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양상을 보면 전체 예산이 많은 교회가 많이 지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교회의 예산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즉 A교회는 전체 예산이 1-3억원인데 장애인에게 지출되는 예산은 1000만원이지만, B교회는 전체 예산이 3-5억인데 반해 장애인에게 지출하는 예산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C교회의 전체 예산은 3-5억인데 장애인에게 지출되는 것은 단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D교회는 5000만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100만원을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다.

(표 IV - 17)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년간 예산

(단위 : 만원,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100이하	1	2	2	1	2	8
101-300	1	1	1	3	-	6
301-500	-	1	-	-	-	1
501-1000	-	-	-	2	-	2
1001이상	2	1	-	1	-	4
기타	-	2	2	2	1	7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모금되는 방식을 보면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1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봉사 현금으로 특별 현금을 통해서는 사용하는 사례가 9개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특별 기부가 4개, 홍보 및 모금 활동을 통해서가 3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 - 18) 장애인을 위한 예산 모금 방식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교회 예산	3	6	1	3	1	14
봉사 현금	1	1	2	4	1	9
홍보, 모금활동	-	1	1	1	-	3
특별 기부	-	1	-	2	1	4
기 타	1	1	-	1	-	2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 1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의 부족은 12개, 그리고 교인의 인식 부족은 7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 - 19)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단위 : 개)

	서울노회	동서울노회	서서울노회	남서울노회	동인천노회	계
전문인력부족	2	4	2	3	2	13
재정부족	2	3	3	3	1	12
교인인식부족	1	1	1	2	2	7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	-	-	2	-	2
서비스의 질적 문제	-	-	-	3	-	3
대상자관리	-	-	1	1	-	2
정보부족	-	1	1	-	-	2

4) 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

설문에 응답한 114교회 중에서 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는 단지 2교회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노회에 속한 교회를 A교회로 지칭하고, 서서울노회에 속한 교회를 B교회로 지칭하여 풀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A교회는 관심 있는 장로가 있어서 자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를 설립하여 사역한지 4년이 되었다. 현재는 약 100명 정도가 있는 수용 시설이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가사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 그리고 결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의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장애 부서에는 귀 교회 교인 중에서 약 6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자체 현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자체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B교회는 교인의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부서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는 설립한지 3년이 되었으며, 약 17명이 출석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는 지체, 청각, 시각, 정신지체 등 다양하게 있으며,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동이나 구청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결연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부서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담임 교역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봉사자로 약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년간 예산으로는 100만원이 사용되며, 교회 예산이나 모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이 교회의 장애 부서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전문 인력의 부족,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 서비스의 질적 문제, 대상자 관리 문제와 정보의 부족 등이 있다.

교회에서 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가 단지 두 곳에 불과하기에 통계 처리하며, 공통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두 부서의 모습은 대부분의 장애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의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설립의 배경도 전문적으로 지역 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교회에 장애 아동이 있기에, 교인 중에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기에 시작하는 것 등으로 결국에는 교회 내에 장애 부서를 세워 두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

위의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적다. 즉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114개의 교회 중에서 단지 85개의 교회(74.56%)만이 직·간접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역은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역이다. 장애인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면서 보호하셨던 존재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하셨던 존재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본받아 따라가는 오늘날의 교회는 마땅히 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첫 번째의 응답이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고 45교회가 응답하였다. 그런데 장애인이 없다고 응답한 교회 중 16교회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장애인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의 교회에는 장애인이 10명이나 출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답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교회 재정의 문제를 20교회가 들고 있다. 이들을 교회의 예산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 - 20) 재정의 부족을 응답한 교회

예 산 액	교 회 수
5천만원 미만	1 4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
계	2 0

위의 표를 볼 때 5천만원 미만의 교회가 14개가 있는데 이곳들은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설문에 응답한 교회 중 7교회는 년간 교회의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도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재정이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다. 또한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사이의 교회가 5교회, 그리고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예산을 보유한 교회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업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원인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상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게로 과반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조사 결과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하는 교회 중 12교회가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9교회만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 장애인이 1,029천명이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24천명이다.

(표 IV - 21) 1995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천명 / %)

구 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장애인수	1,029 (97.72)	24 (2.28)	1,053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의 절대다수(97.72%)가 시설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소수만(2.28%)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도 이 비례에 의하여 시설보다는 재가 장애인에게로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과반수가 시설 장애인에게로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장애인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을 선정할 때 교역자나 교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와 지역의 복지관을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10교회씩이 나왔다. 이는 단지 교회가 자체 교회 내에서 결정하지 않고 지역 복지관이라는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교역자나 교인을 통한 경우나 복지관을 통한 경우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관 등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등록된 장애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까지 등록된 장애인은 보훈 대상자를 포함하여 363천명이다. 이는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재가 장애인 중에서 약 35.28%로 $\frac{1}{3}$ 을 차지한다. 결국 $\frac{2}{3}$ 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몰라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40%나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선정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다섯째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

조사 결과 자립 지원 서비스와 결연 서비스를 각각 8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되 재정적인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장애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비 재정적인 부분에도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7교회에서 육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는 단지 1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비 재정적이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는 정서 서비스에는 단지 3교회만이 참여하고 있다.

결국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것과 육체적인 부담이 적은 서비스에 사역이 집중된다면 교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담 사역자가 없다는 문제 점이다.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가 15교회로 5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10교회(35.71%)만이 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도 장애인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봉사자 둘 중의 하나라도 있는 교회가 14교회이며, 전혀 없는 교회가 14교회로 동일하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의 수준에서 볼 때 결국 장애인 복지 사업은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시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문제이다.

이제는 교회에서 장애인을 전담하는 사역자, 또는 교회 복지를 담당하는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고 효과는 적다. 이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목회자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사례분석

이제 본 연구는 여기서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잘 실시하는 교회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려고 한다. 즉 사례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장점을 IV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1.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교회의 사례

사례분석에 선정된 교회는 성남의 한 곳(A교회)과 서울의 한 곳(B)교회이다. 이 두 교회는 현재 장애인 복지 사업을 긍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으며,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교회이다. 즉 지역은 서울과 지방이지만 재개발이 되어지는 지역과 신도시 아파트 지역이며, 또한 개척한지 몇 년 되지 않는 교회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이 두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자와 함께 만나서 면담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았다.

1) A교회(성남)

1994년 4월에 장애인 부서가 설립되어 현재 4년간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

처음 장애인 부서가 설치된 계기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헌신한 한 목회자를 통하여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도전을 받아, 담임 목사님의 열정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담 사역자 1명과 열정 있으며 헌신된 교사 23명, 자원봉사자 11명이 참여하여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부서에는 정신지체를 중심으로 자폐 아동 25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약 30분 이내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이며, 인근에 위치한 장애 아동 학교인 성은 학교 학생들

이다.

현재 교회에서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역으로는 예배와 놀이 치료, 그리고 공작 활동이 주 활동이며, 학교가 방학중에는 교회에서 낮 시간에 장애 아동을 돌보아 주는 주간 보호 서비스(day care service)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교회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일 장애인 체험하기와 장애인 이해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 농아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의사 소통을 위하여 수화 교실을 계획하고 있다.

2) B교회(서울)

1994년 담임 목사의 열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부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교회 안에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존재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부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부가 있다. 부설 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야학과 컴퓨터 교실, 그리고 관악구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 아동이 있다.

여기에는 사역자로 전임 목사 1명, 교육 전도사 1명, 그리고 조기 교실 담당 교사 2명이 유급으로 있으며, 약 60여명의 무급 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이 장애인 부서에 등록된 장애인은 교회 인근에 위치한 재가 장애인들이며, 대부분이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서 출석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은 교회에서 봉고를 2대를 세를 내어 운송하고 있다.

이 교회의 장애인 복지 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회가 위치한 구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장애인을 위한 자립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직업 재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기 교실을 운영하여 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장애 아동을 둔 부모 및 가족의 양육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 교회의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 참조 : 장애인 교회의 사역 소개

(표 V - 1) 장애 인부서의 사역 내역

	현재 사역 내역	향후 추진 계획
한 마 음 부	주일 모임 : 찬양, 예배, 성경공부, 식사, 교제	복지홈
	현장견학 : 장애인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하여 박물관, 관람시설들을 방문하고 있다.	장애인특수학교 : 현재의 장애인야학과 컴퓨터교실, 장애아동조기교실 등을 통합하여 장애인특수학교로 확대 운영
	가정방문 :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돋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수화교실	
사 랑 부	주일모임 : 예배, 성경공부	특수아동학교 설립추진
	주중 사랑실천학교 : 주중에 아동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장애인아동 부모와 아동을 위한 상담소
	장애인아동 부모교육	
	영세장애인아동에게 장학금을 지급	장학회 확대 추진
	방학중 놀이활동	
부 설 기 관	장애인 야학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 4명을 비롯하여 15명의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교실 : 장애인들에게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립장(협력사업) : 관악자활지원센타와 협력하여 관악구내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아동 조기교실 : 관악구내 영세장애인아동을 위한 조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사례분석결과

1) 담임 목사의 의식 변화

A교회와 B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동일하게 담임 목사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의 방향은 담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의식 있는 교인을 통하여 담임 목사 도전을 받아 사역을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필자가 90년 초반에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 경우 장애인 복지 사업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회에서 할 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기타로 8개의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것, 장애인이 비록 소수이지만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 교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부족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담임 목사 의식 부족이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상

위의 두 교회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상을 교회와 동일 지역에 위치한 재가 장애인으로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장애인이 교회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수는 1시간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성인 장애인의 경우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교인 중에 동일 방향이 있으면 동승해서 출석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는 준비된 봉고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장애 아동의 부모가 데려다 주곤 한다.

이 두 교회는 동일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함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급여

사례분석에 나타난 두 교회는 지역 사회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다. 즉 A교회의 경우는 현재 방학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기 중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B교회의 경우는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검정고시 준비생과 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컴퓨터 교실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고, 구청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 아동 조기 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주중 사랑 실천 학교라는 명칭으로 방과후에 아동들을 보호하며 돌보고 있고, 재가 장애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실질적이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들 중에서도 관심과 인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역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장애인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4) 장애인 복지 사업의 전달체계

사례분석을 한 두 교회에는 유급으로 사역자를 채용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A교회의 경우는 유급 교육 전도사를 두고 있으며, B교회의 경우는 전임 목사 1명, 교육 전도사 1명, 그리고 조기 교실 교사 2명을 채용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위의 두 교회들은 유급 사역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부서가 조직이 되어 장애인 복지 사업을 조직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 결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계획성이 없고, 실제적이지 못한

장애인 복지 사업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장애인에게 필요 한 것을 채워 주는 것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5) 지역 관공서와 협조 사역

B교회의 특징은 지역사회의 관공서와 협력하여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교회는 구청과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재활의 하나로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봉투 부치기와 조립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삶의 의의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구청과 협력하여 지역 내에 있는 영세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조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영세 가정의 장애 아동을 조기교육 시켜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에 장애 아동을 돌보아 주기에 장애 아동의 가족으로 하여금 주간에 장애 아동 옆에서 항상 붙어 있으면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 보육 부담을 줄여 주고, 상대적으로 장애 아동의 부모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역을 단순히 교회 혼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많고 쉽게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관공서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업체로 하여금 장애인 자립장에 일을 위탁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며, 신뢰성을 가지게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장애인들은 인류 역사에 항상 존재해 오면서 늘 천대받으며, 차별과 소외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인정받지 못하며 유린되어 왔다. 한국에서 바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기독교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상을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특수교육, 의료 서비스, 그리고 수용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역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워 준 좋은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 사업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으며, 좋은 방법을 널리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을 먼저 선정하였고, 수도권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5개의 노회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봄 정기노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간에 각 노회마다 50부씩의 설문지, 총 250부를 배부하였고, 114개(표 IV - 1 참조)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의 단순빈도와 서술적인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응답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 방법에 따른 조사 분석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 (표 IV - 2 ~ 7)

설문의 응답자는 목사와 장로가 참여하는 노회 때에 배부하였기에 남성이 112명(98.25%)이고, 여성은 단지 2명(1.75%)에 불과하였다. 응답자 연령은 40대가 46명(40.3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30대가 35명(30.7%)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

자의 직분은 담임 목사 84명, 부교역자가 1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교회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경우가 43%로 가장 많고, 100-500명인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응답한 지역교회에 장애인이 등록한 것을 보면 전혀 없는 교회가 47교회, 5명 이하인 교회가 51교회로 나타나 86%나 되는 교회가 장애인이 없거나 5명 이하의 소수가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교회는 일반 주택지(60.5%)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 (표 IV - 8 ~ 10)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장애인이 교회에 없는 것(45개)을 뽑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정의 문제(20개)를 제기하였고,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도 8개나 나왔다. 장애인 복지 사업이 교회의 본연의 사역이 아니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10명이나 출석하면서도 장애인이 없거나 소수라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명중 79명이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지 3명만이 '아니요'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43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36개 교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으로 계기만 된다면 많은 교회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교회 (표 IV - 11 ~ 19)

응답한 교회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20개) 사역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신지체와 중복 장애를 대상으로 각각 6개씩의 교회들이 사역하고 있다.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상이 비교적 다수이지만 재가 장애인의 경우는 소수를 향한 사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12교회가 시설을 지원하고, 9교회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지

역의 복지관을 통한 경우와 교역자 혹은 교인의 추천인 경우가 동일하게 1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이나 구청을 통하는 경우가 4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결연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가 8개씩이고, 가사 서비스는 7개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교인의 경우 실무자와 봉사자가 없는 경우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가 15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으며, 단회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추론되어 진다. 장애인에게 쓰여지는 예산의 결정은 담임 목사(9개), 담당 부서(8개), 그리고 제직회(6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8교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6교회 순으로 나오고 있다. 최고로 지출하는 교회는 7-8천만원을 지출하는 교회이다. 이 예산의 모금은 교회 일반 예산의 경우가 14개로 가장 많고, 봉사 헌금이 9개로 다음에 나오고 있다.

장애인 복지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13개), 재정의 부족(12개), 그리고 교인 인식의 부족(7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애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

응답한 교회 중 단지 2교회만이 장애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교회도 체계적인 준비 속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관심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있기에, 또는 교인의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기에 시작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담임 목사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두 교회 모두 장애인 복지 사업의 계기가 담임 목사 의식 변화로 시작되었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상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재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즉 이 두 교회는 동일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함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급여가 다양하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들이다. 즉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 야학, 컴퓨터 교실, 장애인 자립장, 가정 방문 등 다양하면서도 실제적인 것들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넷째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한 유급 전임 사역자를 두었고, 사역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는 지역의 관공서와 협력함으로 보다 크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구청과 협력함으로 영세 가정의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교실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자립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결론을 근거로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계몽 운동이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의 문제점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본 결과 지역교회에서의 장

애인 복지 사업은 담임 목사 의식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대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몽 운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앞으로 배출될 목사를 위해서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장애인과 관련된 학과목을 설치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목사들을 위해서는 총회 차원의 목회자 보수 교육을 계획해서 실시하던지, 총회의 사회부나 전도부가 협력하여 지역 노회의 사회부와 전도부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세미나 혹은 운동을 일으켜서 계몽을 해야 한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장애인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는 대상 선정에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도 우리가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과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이웃은 재가 장애인이다. 특히 멀리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을 지역교회가 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발굴에 힘써야 한다. 즉 교회의 교역자나 교인을 통한 추천, 지역의 복지관과 관공서를 통한 추천을 통하여 곁으로 드러난 등록된 장애인을 찾고, 다음으로 지역 사회에 숨겨진 장애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교회의 구역 조직과 읍·면·동의 부녀회 등의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급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지는 급여는 일정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과 크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교회는 지역에 속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역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역의 복지관이나 읍·면·동등의 관공서와 협력한다면 필요한 것을 용이하게 찾아내어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교회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장애인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장애 예방, 장애인에 대한 태도, 수화나 점자, 장애 일일 체험하기 등을 교육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더불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는 자애인 복지사역을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급 전담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즉 목회자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앙인 중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을 채용하여 전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업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부서가 없이 유급 사역자만 전담하도록 한다면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즉 이들에게 부여된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고 다양하기에 일에 지치게 되고 사역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5)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의 확보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의 결과 대부분이 교회의 봉사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예산 뿐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의 활동 예를 들면 발표회나 일일 찻집, 그리고 바자회 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또한 일

반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달 1000원 회원 모집이나 저금통 배부를 통한 동전 모으기 운동, 또한 자식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등을 통한 기금 형성, 특별 기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치 않는 어린이용 도서나 장난감, 그리고 입지 않는 옷과 사용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한 수집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 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와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복지 사업에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채용하여 활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진다. 이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재원을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통한 교회 밖에서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도용, 「장애인복지연습」, 서울 : 홍익제, 1996.
- 권선진 외,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김범수, 「재가복지론」, 서울 : 홍익제, 1993.
- 김상규 외, 「사회복지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 김융일 외,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 나남출판, 1995.
- 김중대, 「장애인복지론」, 대구 : 홍익출판사, 1989.
- 나이또 토시히로 저, 박천만 · 김경란 역, 「구약성경에서 본 장애자」, 서울 : 한국장애인전도협회, 1989.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1997.
- 민은식 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박옥희 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신상훈, 「장애인취업 소프트」, 서울 : 씨티미디어, 1995.
-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 : 대학출판사, 1997.
- 유의웅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선교」,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아라이 다까시 저, 박천만 역, 「장애인 문제와 교회의 책임」, 서울 :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3.
-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안양 : 한국특수요육연구소, 1996.
-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 성경읽기사, 1987.
- 이현송 외,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기초이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지방화시대의 지역복지 실천방법론 -케어/케이스 관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정기원 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_____,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_____,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정덕환, 「절망이 나를 흔들어도」, 서울 : 도서출판 아가페
- 조성모 외,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서울 : 학문사, 1997.8
- 차기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경기도 안양 : 좋은 생각사, 1994.
-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사랑의 실천운동」, 서울 : 성광문화사, 1984.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 기독교문사, 1989.
-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지방자치와 교회의 역할」, 서울 : 한국기독교장로회 출판부, 1995.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편, 「지역복지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 도서출판 동인, 1996.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집」, 서울 : 도서출판 함께걸음, 1995.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비교장애인복지정책」, 서울 : 일진기회, 1996.
- 해롤드, H. 월키, 서재일 옮김, 「장애인과 함께 사랑으로 개혁해가는 교회」, 서울 : 도서출판 선교문화사, 1990.
- 황진수, 「현대 복지 행정론」,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6.

2. 외국 문헌

- Bender, Ruth E., *The Conquest of Deafness*, Cleveland & London :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0.
- Boswell, David M. & Wingrove Janet M.(ed), *The Handicapped Person in the Community*, London : the Open University press, 1976.
- Gilbert, Neil, & Specht, Harry,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New Jersey : Prentice - Hall, 1986.
- Lawrence, Edgar D., *Focus on Deafness*, Washington, D.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8.
- Pentz, Croft M., *Ministry to the Deaf*, Wheaton. illinois : Tyndale House Publishers, 1971.
- Russo, Anthony, *The God of the Deaf Adolescent*, N. Y. : Paulist press, 1975.
- Yount, William R., *Be Opened*, Tennessee : Broadman press, 1976.

3. 학위논문

-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성곤,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통합사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찬, “지역교회에서의 지역복지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천주교회의 본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효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한국 교회의 역할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변경섭, “한국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서문원, “재가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태종,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경아,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양기, “장애인 선교와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재성, “한국 기독교 사회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준우, “농아 고등학생들의 교회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 교회사회 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임영철, “지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 대덕구에 소재 중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의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조인연, “한국교회의 장애인선교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 조철송, “한국기독교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주은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은식, “장애인 공동가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홍기순,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교회의 연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4.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김성재, 「장애인 대학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날개, 밀알복지재단, 「한국 기독교 장애인복지기관 편람」,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6.

세계밀알연합회, 「제1회 장애인 선교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8.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1989.

정진모,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12주반 교재』 「정신지체인복지」, 보건복지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97.

정형석, 「제2기 재가장애인 선교복지요원 양성훈련」, 한국밀알선교단, 199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학교」 1995.

한국 아·태 장애인10년 연구모임, 「공개 토론 자료집」, 1995.

_____, 「아·태 장애인10년 선언집」, 1995.

_____, 「연구논문집」, 19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 -양성교육교재-」, 1992.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 1996.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기관편람」 1992.

5. 기타

개역성경

목회정보연구소, “로고스바이블3.0” 컴퓨터 CD.

ABSTRACT

A Study on Welfare Ministry with the Disabled Person in Local Church

Nam, Jae-Jung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disabled persons were recorded in human history, and always were treated contemptuously by normal people. Moreover, the disabled persons were took no accou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man, and were devastated by normal people in the middle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It were missionaries in the first stage of Christianity missionary work that had made ordinary people awaken, and opened eyes to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They carried into various kinds of religious employments, for example, education for the disabled, service of medical treatment, protection of institutional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so forth, achieved good outcomes in the basis of thoughts to come from the Holy Bible. However, today's Korean churches failed to succeed these great traditions that they established in the past days. Accordingly, it is shown that many churches have been

consistent in the handicapped with silence and indifference.

Following by the result of sample survey, 85 churches among 114 churches that replied don't take part in welfare ministry for the disabled, and even the participating churches are staying in a degree such as finances supports and service of household affairs which are able to do without any burden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local church to carry into welfare ministry for the handicapped, plans for improvement can be groped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s followings.

First, it should be in need of charged pastor's recognition of the handicapped. The welfare ministry of local churches is generally started from charged pastor's consciousness. If there is no change of charged pastor's recognition of the handicapped, the welfare ministry for the disabled never can be practiced.

Second, objects of the welfare ministry for the disabled should be the disabled who always have been in their own house, belonged to the area in which churches are located. In fact, we never can disregard the disabled who are accommodated with institutional centers. Nevertheless, now the disabled in their own house 34 times as much as the disabled in institutional centers are took no account, and even more than half of the welfare ministry are concentrated upon the institutional centers. Now is the time to

avert our eyes from the disabled in the protection to the disabled in their own house, and local churches should participate in the welfare ministry for the disabled in their own house.

Third, local churches should provide various services to the disabled, and welfare ministry should be carried in diverse ways to confirm with desires of the disabled. That is, they should contain the material support as well as the immaterial support.

Forth, it is in need of professional workers for the welfare ministry. In other words, a pastor who studied social welfare, or a social worker who has faith in the Lord should be taken into the service. Moreover, through cooperation with regional government and other public offices or welfare centers, the welfare ministry should be planned to be more effective works.

Finally, increase of finance is in need to develop various kinds of ways. That is, passive attitude, to deduct some money from service offering and general offering, should be changed into active attitude, to practice a lot of ways for increase of finance.

설 문 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와 귀 교회에 문안드립니다.

저는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야간에 한성대 행정대학원의 복지행정학과에 재학중이며, 황진수 교수님의 지도하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교회에서 장애인의 사역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기록해 주시면 이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 방법과 이를 통한 장애인 전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신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교회 내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담임 교역자가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 4.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지도교수 : 황 진 수

조사자 : 남 재 중

◆◆ 참 조 ◆◆

장애인 복지 사업

1. 장애인 복지 사업이란?

시설과 가정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회의 복음 활동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1) 가사서비스 : 집안청소, 식사준비, 시장보기, 다림질, 세탁, 목욕 등
- 2) 간병서비스 : 안마, 병시중, 병원안내, 동행, 개인위생(손톱 깎기, 머리 감기기), 통원 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안내, 약품구입, 산책, 신체운동, 집 안소독 등
- 3) 정서적서비스 : 말벗, 상담, 학업지도, 잔 심부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제 공, 은행업무, 민원대행, 편지 써주기 등
- 4) 결연서비스 : 생활용품, 용돈지원, 의부모 · 의형제 맺어주기 등
- 5)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간단한 진료, 질병상담, 보건기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 연락 · 알선
- 6) 자립지원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취업마련, 취업의뢰, 취업안내
- 7) 주민교육서비스 : 요보호 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가정에서 대상자를 보살피는 요령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 8) 기타 : 교회시설 등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3. 개념 정의

- 1) 장애인 부서 : 비 장애인이 중심이 된 교회에 하나의 부서로서 '장애인 부'가 있는 것
- 2) 장애인 교회 : 교회의 구성비율에서 장애인이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다음 중 해당되는 질문에 대하여 _____에
V 표를 해 주시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_____ 2. 여 _____

2. 귀하의 연령은 ? 만 _____ 세

3. 귀하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

- 1) 담임목사 _____ 4) 집사 _____
2) 부교역자 _____ 5) 기타 _____
3) 장로 _____

4. 귀하가 본 교회에서 근무한 연수는 ? 만 _____년 _____개월

5. 귀 교회의 성도 수는 ?

- 1) 100명 미만 _____ 4)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_____
2) 100명 이상 - 500명 미만 _____ 5) 2000명 이상 _____
3)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_____

6. 귀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의 수는 ? 약 _____명 (약 _____%)

7. 귀 교회의 연간 예산은 ?

- 1) 5천만원 미만 _____ 4) 3억 이상 - 5억 미만 _____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_____ 5) 5억 이상 - 10억 미만 _____
3) 1억원 이상 - 3억 미만 _____ 6) 10억 이상 _____

8. 귀 교회의 지역적 특성은 ?

- 1) 영구임대아파트지역 _____ 4) 상가지역 _____
2) 일반주택지역 _____ 5) 공단지역 _____
3) 재개발 및 취약지역 _____ 6) 기타 ()

9. 귀하의 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 1) 없다 _____ : 10번 문제
2) 있다 _____ : 13번 문제

10. 귀 교회에서 장애인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1)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없기에 하지 않는다. _____
- 2) 교회에 재정 규모가 작기에 여유가 없다. _____
- 3) 교회에 장애인에 관한 전문인력이 없기에 하지를 못한다. _____
- 4) 장애인의 사역은 교회 본연의 사역이 아니므로 하지를 않는다. _____
- 5) 기타 ()

11. 귀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_____
- 2) 아니요 _____

12. 귀 교회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1) 예 _____
- 2) 아니요 _____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귀하의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1)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가정에 재정 지원 혹은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_____ 14번 문제로
- 2) 장애인 부서를 설치하여 사역하고 있다 _____ 25번 문제로
- 3) 장애인을 위한 교회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_____ 43번 문제로

◆ 간접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14. 귀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수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_____ 명

15. 귀 교회는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숫자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지체장애 _____ 4) 정신장애 _____
2) 언어 청각장애 _____ 5) 중복장애 _____
3) 시각장애 _____ 6) 기타 ()

16. 귀 교회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시설 _____ 2) 재가(가정) _____

17. 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애인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 1) 대상자가 직접 교회에 도움을 청한다 _____
2) 복지관이나 타 봉사기관을 통하여 정한다 _____
3) 지역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_____
4) 교역자나 구역, 교인의 추천으로 정한다 _____
5) 동이나 구청을 통해 알아본다 _____
6) 기타 ()

18. 귀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 1) 가사서비스 _____ 5) 보건의료서비스 _____
2) 간병서비스 _____ 6) 자립지원서비스 _____
3) 정서서비스 _____ 7) 주민교육서비스 _____
4) 결연서비스 _____ 8) 기타 ()

19. 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교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1) 실무자 _____ 명 2) 자원 봉사자 _____ 명 (남 _____ 여 _____)

20. 귀 교회에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와 인력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 1) 있다 _____ 2) 없다 _____

21.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의 사용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 1) 담임 교역자 _____ 4) 담당 부서 (여전도회, 청년회 등) _____
2) 당회 _____ 5) 기타 _____ ()
3) 제직회 _____

22. 귀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년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원

23. 귀 교회는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교회 봉사비 예산 _____
- 2) 봉사헌금 _____
- 3) 홍보, 모금활동 _____
- 4) 특별기부 _____
- 5) 기타 ()

24. 귀 교회가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1) 전문인력의 부족 _____
- 2) 재정의 부족 _____
- 3) 교인들의 인식부족 _____
- 4) 목회자의 인식부족 _____
- 5) 홍보부족 _____
- 6)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_____
- 7) 서비스 내용의 질적 문제 _____
- 8) 대상자 조사 및 선정 _____
- 9) 대상자 관리 _____
- 10) 정보부족 _____
- 11) 교회 행정적 절차의 까다로움 _____
- 12) 기타 ()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에 대한 설문입니다.

25. 귀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설립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년

26. 귀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_

- 1) 담임 교역자가 장애인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설립하게 되었다. _____
- 2) 교회에 개인적으로 출석하는 장애인이 있어서 설립하게 되었다. _____
- 3) 교인의 자녀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설립하게 되었다. _____
- 4) 주변에 장애인 수용 시설이나 학교가 있어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_____
- 5) 기타 ()

27. 귀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수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_____ 명

28. 귀 교회는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숫자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지체장애 _____ 4) 정신지체 _____
2) 언어 청각장애 _____ 5) 중복장애 _____
3) 시각장애 _____ 6) 기타 ()

29. 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애인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1) 대상자가 직접 교회에 도움을 청한다 _____
2) 복지관이나 타 봉사기관을 통하여 정한다 _____
3) 지역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_____
4) 교역자나 구역, 교인의 추천으로 정한다 _____
5) 동이나 구청을 통해 알아본다 _____
6) 기타

30. 귀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교회에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교회버스를 통하여 _____ 4) 도보로 _____
2) 자가용을 가지고 _____ 5) 기타 _____
3) 대중교통으로 _____

31. 귀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교회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숫자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15분 미만 _____ 4)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_____
2) 15분 이상 - 30분 미만 _____ 5) 1시간 30분 이상 _____
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_____

32. 귀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1) 가사서비스 _____ 5) 보건의료서비스 _____
2) 간병서비스 _____ 6) 자립지원서비스 _____
3) 정서서비스 _____ 7) 주민교육서비스 _____
4) 결연서비스 _____ 8) 기타 ()

33.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의 사용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 1) 담임 교역자 _____ 4) 자체 부서 _____
2) 당회 _____ 5) 기타 ()
3) 제직회 _____

34. 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교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1) 실무자 _____ 명 2) 자원 봉사자 _____ 명 (남 _____ 여 _____)

35. 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1) 귀 교회의 교인 _____ 3) 인근의 타 교회 교인 _____
2) 인근의 학생 _____ 4) 기타 ()

36. 귀 교회 장애인 부서의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원

37. 귀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교회 봉사비 예산 _____ 4) 특별기부 _____
2) 봉사현금 _____ 5) 기타 ()
3) 홍보, 모금활동 _____

38. 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인 부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 1) 긍정적이다. _____ 4) 약간 부정적이다. _____
2) 약간 긍정적이다. _____ 5) 부정적이다. _____
3)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_____

39. 귀 교회의 장애인 부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계몽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1) 없다 _____
2) 있다 _____
① 수화교실 점자교실 등 _____ ④ 장애인 이해를 위한 자료집 배부 _____
② 일일 장애인 체험하기 _____ ⑤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 _____
③ 장애인 이해를 위한 특강 _____ ⑥ 기타 ()

40. 귀 교회에서 비장애인 신자들의 장애인 신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합니까?

- 1) 긍정적이다. _____ 4) 약간 부정적이다. _____
2) 약간 긍정적이다. _____ 5) 부정적이다. _____
3)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_____

41. 귀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서 비장애인을 향한 인식 계몽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1) 없다 _____
2) 있다 _____
① 수화교실 점자교실 등 _____ ④ 장애인 이해를 위한 자료집 배부 _____
② 일일 장애인 체험하기 _____ ⑤ 기타 ()
③ 장애인 이해를 위한 특강 _____

42. 귀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1) 전문인력의 부족 _____ 7) 서비스 내용의 질적 문제 _____
2) 재정의 부족 _____ 8) 대상자 조사 및 선정 _____
3) 교인들의 인식부족 _____ 9) 대상자 관리 _____
4) 목회자의 인식부족 _____ 10) 정보부족 _____
5) 홍보부족 _____ 11) 교회 행정적 절차의 까다로움 _____
6)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_____ 12) 기타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장애인의 교회로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교회에 대한 설문입니다.

43. 장애인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주변에 떠돌아다니던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면서 장애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_____
2) 비 장애인 교회에서 하나의 부서로 있다가 독립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_____
3)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학교에서 하나의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 _____
4) 담임 교역자의 장애인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_____
5) 기타 _____

44. 귀 교회의 담임 교역자의 장애 유무와 장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장애 (유 _____, 무 _____) 장애종류 (_____)

45. 귀 교회는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1) 지체장애 _____ 4) 정신지체 _____
2) 언어 청각장애 _____ 5) 중복장애 _____
3) 시각장애 _____ 6) 기타 (_____)

46. 귀 교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 비 장애인 (_____ / _____)

47. 장애인들의 유직업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

48. 귀 교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수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_____ 명

49. 귀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교회에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번호)
1) 교회버스를 통하여 _____ 4) 도보로 _____
2) 자가용을 가지고 _____ 5) 기타 (_____)
3) 대중교통으로 _____

50. 귀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교회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15분 미만 _____ 4)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_____
2) 15분 이상 - 30분 미만 _____ 5) 1시간 30분 이상 _____
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_____

51. 귀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1) 가사서비스 _____ 5) 보건의료서비스 _____
2) 간병서비스 _____ 6) 자립지원서비스 _____
3) 정서서비스 _____ 7) 주민교육서비스 _____
4) 결연서비스 _____ 8) 기타 (_____)

52. 귀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년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 원

53. 귀 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교회 봉사비 예산 _____ 4) 특별기부 _____
2) 봉사헌금 _____ 5) 기타 ()
3) 홍보, 모금활동 _____

54. 귀 교회의 년간 예산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1) 교회 자체의 현금 _____ 3) 교회의 특별행사 (바자회, 일일찻집 등) _____
2) 외부에서의 지원 _____ 4) 기타 ()

55. 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역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1) 실무자 _____ 명 2) 자원봉사자 _____ 명 (남 _____ 여 _____)

56. 귀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 1) 귀 교회 교인 _____ 3) 인근의 타 교회 교인 _____
2) 인근의 학생 _____ 4) 기타 ()

57. 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 1) 긍정적이다 _____ 4) 약간 부정적이다 _____
2) 약간 긍정적이다 _____ 5) 부정적이다 _____
3)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_____

58. 귀 교회의 장애인 부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계몽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1) 없다 _____
2) 있다 _____
① 수화교실 점자교실 등 _____ ④ 장애인 이해를 위한 자료집 배부 _____
② 일일 장애인 체험하기 _____ ⑤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 _____
③ 장애인 이해를 위한 특강 _____ ⑥ 기타 ()

59. 장애인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교회 자체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_____
- 2)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전문인력의 부족의 문제 _____
- 3) 주로 장애인이 중심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한점 _____
- 4) 교회 주변 지역 사회의 장애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 _____
- 5)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_____
- 6) 기타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